



KHNMC DOCTOR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신경센터 : 중풍, 파킨슨병, 두통, 어지러움증, 손발저림(시림),

안면통증, 안면경련, 뇌전증

한방순환기클리닉 : 흉통(가슴 답답함), 경계·정충(가슴 두근거림),

고혈압, 저혈압, 부정맥, 부종

문의

02-440-7156

박성욱 교수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박성욱 한의학연구소〉 <http://cafe.naver.com/happyomd>

중풍, 파킨슨병, 두통 등의 질환정보 소개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NAVER 박성욱 교수 검색


“파킨슨병의 전반적인 변화를 봤을 때, 한의학적으로는 간의 기능과 연관됐다고 파악합니다. 한의학에서 간을 지칭할 때는 해부학적인 장기뿐 아니라 간 기능 계통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떨리고 어지러운 증상, 근육 관련 질환은 모두 간 기능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파킨슨병 초기에 나타나는 잠꼬대나 악몽도 뻗어나가는 간의 기운이 억눌려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처럼 파킨슨병의 양상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간의 병을 다스리는 청간탕 처방이 나옵니다. 간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 간에 혈이 부족하고 화가 있을 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성욱 교수는 여기에 착안해서 약물을 첨가한 청간탕가미방을 만들어 기초연구를 실행하고 임상에도 적용했습니다.

“연구를 해 보니 파킨슨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뇌세포 보호 효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동물실험에서도 파킨슨병을 유발한 다음 이 약을 주면 운동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파민 복용 환자도 이 약을 병용하면 도파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시작해서 3년간 진행되는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www.khnmc.or.kr

 blog.naver.com/khnmc06

 www.facebook.com/khnmc2006

 www.youtube.com/user/KHNMC2006

전인적 치료로 스스로 치유할 힘을 주는 평생의 동반자

“최근에 기억에 남는 환자는 상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발병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파킨슨병 평가점수(UPDRS)가 31.5 점이었습니다. 이제껏 한방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통원치료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에서 침을 한번 맞고 나서 너무 좋아지니까 당장 입원하셨습니다. 2~3주 치료를 했는데 평가점수가 11점으로 떨어졌고 보행장에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보행 문제를 겪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저한테 가라고 권유할 정도입니다. 파킨슨병이 아닌데도 말이죠.”

박성욱 교수는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병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지요. 박 교수는 환자의 얼굴빛이 밝아진 것만 보아도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행복이 의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환자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의사가 진정한 명의로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의사가 동행한다면 파킨슨병이라는 마라톤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겠죠.

근거 중심의 한의학과 전인적 치료로 파킨슨병 극복의 닳을 올리다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 근본 치료가 어려운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도파민 보충 치료는 초기 효과 좋으나 후기 합병증 우려

- 침과 봉독약침의 치료 효과 입증

- 청간탕가미방 한약제제 개발 연구

- 전인적 치료로 힘을 주는 평생의 동반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T GANGDONG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 대표전화 : 1577-5800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우리나라도 어느덧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지닌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삶의 질이 동반된 수명연장이라는 복된 장수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암 못지않게 치매나 전신불수 등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과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이 악화되지만,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기능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문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에는 각종 비방과 특효약이 난무하고, 역설적으로 한의학에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묘방을 쫓지만, 근거와 효험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무작정 매달릴 수 없어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를 만나고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본 치료가 어려운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도파민 보충 치료는 초기 효과 좋으나
후기 합병증 우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어서 재생되지 않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도파민은 인체의 동작과 운동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미세조정해 주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여러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 손발이 떨리고,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며, 움직임과 행동이 굼뜨고 느려지며, 자세가 불안정하고 보행장애를 겪습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도 나타나며 특히 통증을 많이 겪습니다.

파킨슨병은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라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레보도파(Levodopa) 등을 사용해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문제



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양과 빈도는 늘어나지만 약물의 작용 시간이 짧아지거나(약효소진), 효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운동동요),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를 흔드는 이상운동증이 발현되는 등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심부자극술(DBS)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킨슨병은 병명 자체가 서양에서 유래했고 현재로서는 완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슨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성욱 교수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을 하나씩 따로 떼면 대응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병이 흘러가는 길을 통틀어서 묶을 만한 한의학적 병명은 사실 없습니다. 증상 자체를 병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한의학에서 파킨슨병을 뭐라고 부른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파킨슨병으로 불리는 질환을 그대로 전제하며 진단도 똑같이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된 병을, 전적으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이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상당수는 도파민도 복용 중입니다.”

박성욱 교수는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의학에서의 파킨슨병 치료 방향과 목적 역시 기본적으로 서양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퇴행성은 기본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완치는 그 노화를 없앤다는 것과 같은 어려운 전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진행을 더디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료방향이 귀결됩니다. 둘째, 파킨슨병 자체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증세를 완화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도파민 약물을 쓰고 있으며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약효소진, 운동동요, 이상운동증과 같은 운동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방 치료가 지닌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적인 특성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과 봉독약침의 치료 효과 입증

바로 뒤이은 박성욱 교수의 말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전래의 한의학 문헌과 처방 자체를 그대로 내밀 줄 알았는데



실험과 임상연구로 효험을 입증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진로하더라도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전제 사실과 치료 후에 증세가 좋아져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한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치료 결과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주로 했던 작업이 바로 한의학 치료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욱 교수는 침과 봉독약침 등 한방치료가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수년간의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침과 봉독약침을 도파민 약물과 병용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과 일상생활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2012년 뇌신경 분야의 저명 국제 학술지인 ‘파킨슨병과 연관 장애(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 지에 게재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The 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된 1500여 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다섯 논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로이터통신과 메드스케이프(Medscape) 등 세계 유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방치료가 지닌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해 12월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국제학회(NMDDP)의 10주년 기념행사에도 초청받아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학술연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엄밀하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중 맹검법과 MRI나 PET 같은 영상의학적 도구를 동원해서 침과 봉독약침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 보행능력, 자세 안정성, 우울 정도와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기전을 연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침과 봉독약침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및 비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연구로 보여준 것입니다. 2016년에는 파킨슨병 환자가 셋 중 둘이 넘는 비율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데, 침과 봉독약침, 작약감초탕 등으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박성욱 교수는 다른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기초연구를 통해 침과 봉독약침이 신경세포 보호와 신경 재조직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침 치료가 도파민의 효율을 높여서 도파민 약물 복용을 늦추거나 복용량을 줄이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침 치료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임상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침 치료를 병행하면 도파민 보충요법만 받은 환자에 비해 파킨슨병 진행이 지연되며 약물도 더 적게 복용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운동동요와 이상운동증 같은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고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청간탕가미방 한약제제 개발 연구

한방에는 침과 봉독약침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 침으로 자극을 줘서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재조직하는 것 뿐 아니라 몸을 최적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최적의 균형점을 맞춰주는 한약의 역할이 큼니다.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